광양여고,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축구 금메달 획득

울산 현대고에 2:0으로 완승, 올해 전국대회 3관왕 달성

▲광양여고 축구부 학생들(사진제공 전남교육청)

광양여자고등학교(교장 주경중)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축구(여자18세이하부)에서 전남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광양여고는 8강전에서 충남 인터넷고를 상대로 6:0로 이기고, 4강전에서는 충북 예성여고에 2:0 승리, 결승전에서 울산 현대고와 만나 2:0으로 승리하여 단체종목 금메달을 획득했다.

결승에서 만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울산현대고와의 경기에서 후반 12분, 범예주 선수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39분, 박인영 선수의 쐐기골로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광양여고는 올해 31회 여왕기축구대회, 29회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전국체육대회 우승으로 3관왕의 성과를 거둬 명실상부한 명문 여자축구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주경중 교장은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고맙다면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들이니 많은 관심 가져 달라고 말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하성매 기자

서부평생교육원, '도서관 가는 날' 운영

유아기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동화교실 운영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원장 김대영, 이하 서부평생교육원)은 유아기 독서습관 형성 및 공공도서관 이용 교육 제공을 위해'도서관 가는 날'동화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8개 기관 유아들을 대상으로 다 음 달 30일까지 교육원 어린이자 료실에서 이루어지며, 사서와 독서 활동가의 지도로 그림책과 동화를 통해 도서관에서 지켜야 하는 공공예절을 익히고, 자료실 등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한다.

이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는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 저하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과의 친밀도를 쌓는 것 또한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김대영 원장은 "어릴 적 도서관에 대한 기억이 커서도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로 자라게 한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교육원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서관과 아이들의 독서습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성진 기자

충남교육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교사 연수 4기' 운영

특수교육 현장의 위기관리 역량 함양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9일 예산꿈빛학교에서 4권역 중 마지막 권역인 아산, 예산, 홍성, 청양 지역의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특수교육 대상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교사 연수(4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국제행동분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희 강사(청주ABA연구소 피움 소장)를 초빙해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위기관리 역량을 기르기 위해 행동관리 전략, 소통 및 협력 방법, 통합학급 내에서의 행동지원 방법 등을 공유했다.

충남교육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8개 교육지원청을 거점센터로 지정해 행동중재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개 특수학교를 행동중재 중심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 모든 특수학교의 보편적 행동중재 지원을 위해 관련 교육 프로 그램과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행동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특수학급에는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의 위기관리 역량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 고 현장에 적용하여 특수교육 대상학 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 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 으로도 특수교육 현장 요구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

예산교육지원청, 2학기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움자리 운영

▲2023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움자리

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유아교육협의회실(별관 2층)에서 2023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움자리 연수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예산 특수교육지원인력 19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1부로는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역할 및 2학기 주요업무사항을 전달했고, 2부로는 퍼스널컬러 컬러큐레이터의 역할 및 실습(한지 퍼스널컬러 대표 한지영)으로 진행됐다.

1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 중심으로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했고,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안내에 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부 진행순서에서는 퍼스널컬러를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좀 더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자신만의 색을 서로 찾아주며 교원 간에 장점을 발견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하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늘 애써주 시는 특수교육지원인력에게 감사의 마 음을 전하며, 이번 연수가 특수교육대 상학생의 인권 보호 및 지원 능력 함양 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특수지원인력 의 멋진 이미지 변화에 큰 기여를 하는 연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참석 한 특수교육지원인력들을 격려했다.

/장은희 기자

북평초, 우리 손으로 직접 기획하는 현장체험학습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리더십 함양

북평초등학교(교장 백현영)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6학년 학생들 8명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체험학습을 서울특별시 일대에서 실시했다. 체험학습은 고속열차, 고속버스, 지하철, 시내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 통을 이용한 배낭여행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추 진됐다.

특히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 4명씩 모둠을 나누어 모둠별로 직접 가고 싶은 장소를 정하여 사전에 조사하고 기획하는 등 둘째 날 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했다.

각 모둠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계획한 장소를 스스로 찾아가며 체험학습에 참여했으며 각 모둠에 인솔 교사 1~2명이 따라

▲지하철을 이용한 목적지에 도착해 기념촬영 모습

가며 안전한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백현영 교장은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확립하고 리더십 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매 기자

서천교육지원청서천도서관, '도서관 운영 유공' 선정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서천도서관(관장 신효정)은 2023년 도서관 운영 유공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서관 운영 유공은 문화체육관광 부가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 질적 향상을 이끈 우수도서 관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전국의 도 서관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상이다.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서천도서관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천도서관은 학교 협업을 통해 어린이 도서회원증 발급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개선해 아이들이 대출회원증이 없어 책을 대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한 독서 인문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서천×온책」 보물상자를 관내 모든 초등 신입생에게 배부하고 학생독서아카데미 작가와의 만남 지원, 찾아가는 특수학급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도서관 운영 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도서관 관계자는 "교육청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서관이 새롭게 태어나 고 있다"라며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 민들의 관심과 직원들의 노고로 도서 관 운영 표창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서 관 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임종복 기자